



## 미사 참례 현황

총 신자 713명 중 주일미사 183명 참례 / 참례율 : 25.67%

| 평일미사          |        | 월 (8/3) | 화 (8/4)<br>내촌 / 본당 | 수 (8/5)<br>장례 / 본당 / 송정 | 목 (8/6)<br>송정 / 본당 | 금 (8/7)<br>본당 / 두촌 |
|---------------|--------|---------|--------------------|-------------------------|--------------------|--------------------|
|               |        | 14명     | 11명 / 23명          | 25명 / 14명 / 11명         | 12명 / 26명          | 13명 / 9명           |
| 주일미사<br>(8/2) | 토요일 저녁 | 송정공소    | 교중미사               |                         |                    |                    |
|               | 37명    | 27명     | 119명               |                         |                    |                    |



## 성전 건축을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봉헌

이번 주 묵주기도 중 기억할 분들 (8월 10일 ~ 8월 16일)

|    |                                                                                                                   |
|----|-------------------------------------------------------------------------------------------------------------------|
| 월  | 조상묵 베드로, 채희병 데레사, 윤준규 야고보, 최미선 루치아, 이순분 데레사, 정혜경 스테파니아, 허단 미카엘, 송옥례 마리아, 이정녀 글라라, 강경순 마리아, 엄숙래 보나, 서은희 철염카타리나     |
| 화  | 한정분 데레사, 이부웅 크리스토폴, 이수경 바오로, 유현상 스테파노, 윤돈규 헨리코, 서정임 미카엘라, 홍웅기 사도요한, 오소연 에밀리아나, 김분재 라파엘라, 최옥순 세실리아, 안규비 클로틸다, 유희경  |
| 수  | 박경희 비아, 유병례 세실리아, 장익자 모니카, 배혜연 글로리아, 박부용 다니엘라, 구자영 효임골룸바, 임성희 바울리나, 윤옥환 아우구스티노, 이가빈 빈첸시오, 조남수 바드리시오, 양정모 바오로, 최인순 |
| 목  | 박진숙 글라라, 김명성 십자가의성요한, 최복순 엘리사벳, 조영수 마태오 신부, 황원재 미리암, 최영숙 심소영 데레사, 하종란 사비나, 박양옥 사비나, 황금옥 로사, 정영숙 율리아, 이종오 대건안드레아   |
| 금  | 박제희 아가다, 황호순 나옴, 지은희 막시밀리아나, 박선미 마리아, 김상희 발레리아, 김옥미 젤마, 김도은 세실리아, 장지선 스테파노, 민복남 글라라, 홍경자 마리아, 함영애 마리아, 최선익 엘리사벳   |
| 토  | 신건숙 그라시아, 장샛별 스콜라스티카, 김춘녀 엘리사벳, 박해니 엘리사벳, 이옥철 이리나, 정지영 야고보, 공영관 스테파노, 죽림동성당수녀원, 임경철 치백요셉, 서길용 다미아노, 이희준 안젤로       |
| 주일 | 이진열 마리아, 최옥남 루치아, 이경호 카타리나, 엄명자 테오도라, 조은애 글라라, 염영주 율리안나, 이은주 소화데레사, 최대혁 가비노, 이정희 로사리아, 이연종 마르티노, 김희정 루치나, 김복자 모니카 |



교황청 시노드 사무처·평신도가정생명부

## 「사랑의 기쁨」 반포 10주년: 오늘날 가정들과 함께 복음을 선포하기

### 1. 오늘날의 가정: 현실, 아름다움, 도전

#### 가정들의 경험과 오늘날 교회의 사목적 헌신을 통하여 시대의 징표를 식별하기

“우리 시대는 급격한 변화로 특징지어지기에, 십 년 전보다 가정에 더 특별한 사목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 선포와 증언이라는 교회의 사명에 동참할 임무를 가정에 맡기십니다.” 「사랑의 기쁨」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 “어느 모로 하느님의 고유한 사랑을 반영하는 사랑의 표징”을 소중히 여기며 “인내심을 갖고 분별 있게” (294항) 한 사람 한 사람을 동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들의 구체적인 삶과 그들을 동반하는 이들의 경험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랑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사랑을 위태롭게 만들곤 하는 취약성도 함께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취약성에는 불안정한 고용과 주거, 질병, 자녀 양육의 어려움, 정서적 고독, 장애 있는 가족 구성원이나 노인 또는 자립이 어려운 이들에 대한 돌봄 등이 있습니다. 오늘날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생활에서, 어떤 희망의 표징, 어떤 도전들과 중대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의 변화가 남녀 간 사랑의 경험, 생명의 탄생, 돌봄, 신앙 전수, 그리고 교회의 사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어떤 사목 경험들이 가정의 구체적 삶 안에서 하느님의 활동을 인식하고 가정의 인간적 영성적 자원을 증진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합니까? 가정들의 이야기에 대한 경청과 지역 교회들의 경험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삶의 경험, 교회적 식별, 신학적 연구, 인문학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는, 우리가 가정들의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가정들을 더 효과적으로 동반하는 데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 2. 젊은이들과 혼인 성소의 발견

#### 젊은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혼인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동반하기

젊은이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 때문에, 안정된 혼인과 가정생활을 계획할 수 있다는 확신이 약화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부의 모범을 보여 주는 증인들 그리고 자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리스도인의 혼인의 아름다움과 약속을 발견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 다시 한번 깊이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 젊은이들은 교회 안에서 혼인 성소의 아름다움에 매료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어린이와 청소년, 젊은이들이 혼인의 가치를 깨닫도록 돕는 언어, 경험, 그리고 교육적이고 영적인 여정은 무엇입니까? 부부와 가정은 어떤 증언을 할 수 있습니까? 부부와 가정은 젊은이들이 정서적, 관계적, 성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그들을 동반하는 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습니까? 동거하는 커플들이 혼인을 선택하고 자녀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 안에서 성숙해 가도록, 사랑과 가정에 대한 그들의 식별 여정에 교회가 동반할 때, 어떤 사목적 관심과 사목적 회심의 단계들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 3. 혼인 생활. 결정적인 때인 혼인 초기

#### 혼인 생활 초기를 비롯하여 삶의 모든 단계에 있는 부부에 대한 경청과 동반

혼인 생활 초기의 부부가 경험하는 것들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때는 부부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 자녀 출산 그리고 가정생활과 일의 양립이라는 도전 과제 등 가정생활을 시작하면서 따라오는 변화를 함께 마주하며, 부부 사랑과 가족 사랑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 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자유와 서로에 대한 책임감 안에서 성숙해 나가며, 그들의 경험을 꾸준히 복음의 빛 안에서 되새기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부부는 가정생활의 다양한 시기들을 헤쳐 나가는 데에 도움을 줄 많은 인간적 영성적 자원을 바로 이 처음 몇 년 동안 일구어 나갑니다. “교회는 …… 다시 한번 깊이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혼인과 가정생활로 부르신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 사랑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가정들이 더욱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상호 지원을 경험하며 교회 공동체의 삶 안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공동 책임 의식을 가지도록 증진하는 방법들을 탐구하여야 합니다. 특히 혼인 생활 초기의 부부들을 도울 가장 효과적인 동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가정들이 더욱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상호 지원을 경험하며 교회 공동체의 삶 안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공동 책임 의식을 가지도록 증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부가 그들의 관계적영적 자원, 생명을 낳고 기르는 부모로서의 자원을 인식하고 발전시키도록 도울 수 있습니까? 가정들이 서로를 뒷받침하고, 나아가 다른 이들을 위한 동반과 증언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가정들의 관계망이라는 풍성한 결실을 드러내는 경험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4. 삶의 어려움 속에서 동반하고 지원하기

### 복잡한 상황에 놓인 가정들과 함께 걸어가기

혼인 생활의 모든 단계에서 관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와 가정은 각별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러한 때야말로 복음이 그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상황들입니다. “우리는 취약함을 인식하는 가운데 혼인 성소의 아름다움을 일깨우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신뢰’ (사랑의 기쁨, 36항)와 거룩함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열망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정들, 특히 현대 사회에 만연한 수많은 형태의 가난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실패와 연약함, 이상과 현실의 괴리, 삶의 복잡한 상황들도 하느님 은총의 활동을 깨닫고 존중과 인내와 희망으로 개개인을 동반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취약하거나 힘겨운 상황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져 왔습니까? 어떤 형태의 저항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고통, 버림받음, 별거,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으로 경청받고 참여하며 공동 책임을 함께 나눈다고 느낄 수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떠한 구체적인 경험들이,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체의 일원임을 깨달으며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개인과 가정을 도와주면서,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식별하며 동반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교회의 얼굴을 오늘날 이미 보여 주고 있습니까?

## 5. 교회 사명의 주체인 그리스도인 가정들

### 부부 사랑과 가족 사랑을 선교 사명을 향한 원동력으로 받아들이기

성 바오로 6세 교황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부부들 자신이 다른 부부들의 사도이자 안내자[입니다]” (인간 생명, 26항). 그들은 사랑이 정적인 현실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 주는 역동적인 여정이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고정되어 있는 삶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 줌으로써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부부들은 사랑의 언어를 날마다 끊임없이 새롭게 익혀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부부들은 공동으로 부름받은 사랑의 성소에 고유한 방식으로 응답합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개인과 교회와 사회의 삶에 유익을 더해 주는 ‘항구한 사랑을 위한 훈련’ 을 복돋우려면, 교회의 선교 사명에 대한 가정들의 기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세계의 삶이 여러 도전을 제기하지만, 가정은 여전히 새로운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첫째 자리입니다(사랑의 기쁨, 287항 참조). 가정의 사명은 여러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복음의 일상적 증언에서, 다른 가정들에 대한 동반에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삶에 대한 참여에서, 그리고 사랑과 돌봄과 연대의 체험들을 통한 사회 기여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부들과 가정들의 경험을 인간적, 영성적, 교회적, 사회적 성숙의 장으로서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부 관계를 통하여 신앙은 물론 사회생활에서 살아 있는 성장의 체험을 증진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복음화 사명과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사목적 회심에 가정들이 이바지하는 바를 어떻게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까?

바티칸에서 2026년 7월 6일



### 우리들의 정성 연중 제18주일

|            |           |          |         |      |         |
|------------|-----------|----------|---------|------|---------|
| 주일 헌금      | 1,104,000 | 주일헌금(송정) | 217,000 | 교무금  | 930,000 |
| 양성, 복지, 원로 | 95,000    | 미래 기금    | 55,000  | 감사헌금 | 200,000 |

교무금 최원석, 정구호, 김성엽, 박희명, 최은희, 김종광, 윤영진, 조성근, 김승례, 나철순, 허연구, 박광열, 이명희, 신성철, 김성현, 박순우, 정하숙, 김윤자, 강인식, 정현희, 최재길, 권병연, 사정애

감사헌금 김승욱(크리스티나) 200,000



성전 건축 기금 현황 2026년 8월 7일 기준

| 구 분  |          |              | 이번 주        | 2026년 누계    |
|------|----------|--------------|-------------|-------------|
| 수입   | 우리<br>본당 | 교무금 납부시 건축기금 | 235,000     | 9,296,000   |
|      |          | 약정 기부        | 3,410,000   | 139,040,000 |
|      |          | 2차 헌금        |             | 7,446,950   |
|      |          | 기타 수입        |             | 17,505,463  |
|      | 외부<br>모금 | 타본당 모금       | 4,820,000   | 97,799,326  |
|      |          | 매일미사         | 6,690,000   | 6,690,000   |
|      |          | 평화방송         | 6,281,000   | 6,281,000   |
|      |          | 가톨릭 평화 신문    | 1,003,000   | 7,726,000   |
|      |          | 가톨릭 신문       | 1,888,000   | 20,558,000  |
|      |          | 기타 후원        | 1,300,000   | 19,006,000  |
| 합 계  |          | 25,627,000   | 331,348,739 |             |
| 지출   | 건축       | 설계비          |             | 9,041,570   |
|      |          | 건축 준비비       |             | 5,960,000   |
|      | 모금<br>홍보 | 광고비          | 3,300,000   | 26,400,000  |
|      |          | 모금 준비비       | 577,600     | 3,192,550   |
|      |          | 봉사자 지원비      |             | 804,670     |
|      | 합 계      |              | 3,877,600   | 45,398,790  |
| 현 잔액 |          |              | 952,797,865 |             |

본당 약정기부 약정기부 141세대 185,300,000원 중 139,040,000원 납부 (납부율 75.03%)  
원일정, 박순우, 김복연, 권오순, 김후태, 소옥선, 박승영, 이덕순, 김금자, 이종대, 김승옥, 김종광, 최삼순

타본당 모금 스무쉴성당 1,880,000원 김영자, 김희주, 한은정, 김선희, 김옥희, 백정자, 안영미, 신상순, 이석범, 황덕중,  
김은숙, 이순희, 이정환, 김중열, 정종섭, 김옥자, 유연순, 우정림, 최정용, 황환천, 서경자  
죽림동성당 2,940,000원 안상오, 김성자, 이현민, 강석태, 정영중, 김영기, 남은숙, 함이안, 강영심, 김혜란, 이효숙, 익명

매일미사  
김미영, 박홍섭, 성윤서, 이성렬, 이상봉, 최미영, 이상혁, 김미영, 강홍희, 최재복, 한애자, 신지윤, 이슬기, 이순오, 정선영,  
양종일, 홍혜숙, 박상열, 전진찬, 노언정, 권영미, 안해화, 김현경, 여순애, 안중훈

평화방송  
조영풍, 김봉준, 김미영, 임유순, 김희숙, 임정만, 장복례, 손우경, 선아소피아, 김연화, 조현정, 서채영, 박준화, 하승호,  
정삼남, 김데레사, 여시원, 안정임, 김용주, 정순규, 김삼자, 박용덕, 서채영, 김연승, 김영중, 이건남, 최정숙, 박형미,  
이지예, 이민지, 남기선, 안춘호, 안옥순, 전경희, 주영숙, 이형수

가톨릭신문  
김에밀리아, 송재욱, 황인선, 정글라라, 정순길, 조효민, 장은희, 박성호, 박승지, 김동훈, 전길순, 김인선, 공원준, 조수정,  
송호정, 윤희영, 김순달, 김순길, 박혜영, 노영임, 정선복

가톨릭 평화 신문  
고재숙, 김익현, 윤정숙, 지춘자, 박현희, 김순달, 오봉환, 정미주, 문정혜

기타 후원  
권희숙, 박영순, 권순용, 최라미, 희망나눔콘서트, 정희진, 정유미, 이경술

지출 광고비 가톨릭신문 8월호 모금준비비 싱가포르 한인성당 모금 항공료